

건설산업 이끄는 자랑스런 역군

— 총 14개 종목, 70명 입상 —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26일 개최된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0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과 정달홍 부회장을 비롯해 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 건설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 여러분들이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군”이라며 “오늘의 수상은 후배 기능인들에게도 귀중한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이상일 회장은 기계설비부문 입상자들을 시상하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기념촬영
(사진 뒷줄 가운데 이상일 회장, 뒷줄 오른쪽 정달홍 부회장)

신 성장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기계설비 시공을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소속으로는 △건축배관 부문에 도천기[(주)리더스산업, 경북], 손원수[(주)정도기연, 부산], 김영표[씨엔씨엔지니어링(주), 충북] 씨가 입상했으며, △전기용접 부문에는 이선학[(주)성보엔지니어링, 서울], 김백철[씨엔씨엔지니어링(주), 충

북], 유정환[(주)금화피에스시, 서울] 씨가 입상했다.

수상자 70여명 전원에게는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상금,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됐고, 해외 산업연수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직종별 1위 입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전국 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 격이 부여된다. 

▼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자)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명	시·도회
건축배관	2위	도천기	(주)리더스산업	경북
	3위	손원수	(주)정도기연	부산
	3위	김영표	씨엔씨엔지니어링(주)	충북
전기용접	1위	이선학	(주)성보엔지니어링	서울
	2위	김백철	씨엔씨엔지니어링(주)	충북
	3위	유정환	(주)금화피에스시	서울

기계설비분야 수상자 소감 한마디



건축배관 2위 / 도전기 (주)리더스산업

입상하면 회사 지명도가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참가하게 됐는데 뜻밖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시공에 임했기 때문에 정밀시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더욱 기량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배관 3위 / 손원수 (주)정도기연

32년 동안 기능공으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어, 주변에서 참가를 권했습니다. 다음 참가 때는 반드시 1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시공하고, 기술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축배관 3위 / 김영표 씨엔씨엔지니어링(주)



수상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했습니다. 37년 동안 건축배관 일을 해왔기에 실력은 자신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밀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고품질 시공에 매진하겠습니다.

전기용접 1위 / 이선학 (주)성보엔지니어링

작년 대회에서 건축배관 1위를 수상했습니다. 20여년을 책임의식을 갖고 기계설비건설 분야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전기용접도 자신있었습니다. 이번 전기용접 1위 수상을 통해 엔지니어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장이 되기 위해 능력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전기용접 2위 / 김백철 씨엔씨엔지니어링(주)



동료들이 권유해 참가하게 됐는데, 수상을 통해 기량을 인정받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품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품질향상 방안을 연구해 장인정신을 갖춘 건설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기용접 3위 / 유정환 (주)금화피에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기능대회 참가를 권유하고 있어서 올해 저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첫 참가이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입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참가를 권유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을 더 연마해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하겠습니다.

